

珍本 『靑丘永言』 [100-115]

- 李德馨(이덕형), 李恒福(이항복)의 시조 -

漢陰 (한음)

李德馨 字明甫 號漢陰 宣廟朝登第 選湖堂 (이덕형 자명보 호한음 선묘조등제 선호당)  
典文衡 官至領相 諡文翼 年十四揚蓬萊見而 (전문형 관지영상 시문의 년십사양봉래견이)  
大奇曰 眞吾師也 (대기왈 진오사야)

이덕형(李德馨 ; 1561~1613) : 자(字)는 명보(明甫), 호(號)는 한음(漢陰), 쌍송(雙松). 1580년 (선조 13년) 별시(別試)에 급제, 정언(正言)을 지내고 1583년(선조 16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홍문관 정자(正字), 수찬(修撰)을 거쳐 이조좌랑이 됨. 31세에 예조참판과 대제학(大提學)을 겸했고, 1602년 영의정에 오름. 1609년(광해군 1년)에 영의정에 중임되었으나 당쟁으로 물러나 양근(楊根)에 은거, 그곳에서 병사함. 시호는 문익(文翼).

100. 큰 蠶(잔)에 𠵼득 부어 醉(취)토록 머그며서

萬古英雄(만고영웅)을 손고바 혀여보니

아마도 劉伶(유영) 李白(이백)이 내 벗인가 하노라.

註 ① 蠶(잔) : 술잔

② 醉(취)토록 : 취하도록

③ 머그며서 : 마시면서(飲)

④ 만고영웅(萬古英雄) : 오랫동안 그 이름이 빛나는 오랜 세월에 걸친 영웅

⑤ 손고바 : 손꼽아

⑥ 혀여보니 : 세어 보니. 골라 보니

⑦ 劉伶(유영) : 중국 진(晉)나라 사람으로 술을 즐기고 ‘주덕송(酒德頌)’을 지음.

⑧ 李白(이백) : 당(唐)나라 현종 때의 시인. 자(字)는 태백(太白). 시선(詩仙)이라 일컬으며 술에 취하여 물에 빠진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고 전함.

현대어역 : 큰잔에 술을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시면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웅을 헤아려 보았더니

아마도 유영과 이백 밖에는 참 영웅이 없는 것 같으니 그들만이 정말 내 벗인가 하노라.

작품분석 : 작자는 40대 전반에 영의정에 올라 세속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 본 이로, 부귀영화의 무의미함과 모략 중상을 앞세운 이조 관아의 생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체험을 통하여 통달한 이였다. 그러기에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가 삭탈관직이 된 후에는 서울을 버리고 시골에 돌아가 자연의 깊이와, 그 무한한 안주(安住)의 평화와, 말없는 대기(大氣)에 마음을 묻고, 그 속에서 인생을 재음미(再吟味)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白 沙 (백 사)

李恒福 字子常 號白沙 宣廟朝登第 選湖堂 (이항복 자자상 호백사 선묘조등제 선호당)  
典文衡 官至領相 鰲城府院君 諡文忠 善諧諠 (전문형 관지영상 오성부원군 시문충 선해학)  
能文章 光海時立節謫北靑卒 (능문장 광해시입절적북청졸)

이항복(李恒福 ; 1556~1618) : 자(字)는 자상(子常), 호(號)는 필운(弼雲) 또는 백사(白沙).

선조 때의 명신(名臣)이며 재사(才士). 어렸을 때부터 두뇌가 영특하여 해학을 즐겼으며, 많은 일화를 남김. 광해군 때에는 좌의정, 우의정을 역임. 1617년 ‘폐모론’에 반대하다 다음해 북청(北靑)에 귀양, 적소에서 죽음. 시호는 문충(文忠).

101. 時節(시절)도 저러하니 人事(인사)도 이러하다

이러하거니 어이 저러 아닐소나  
이런자 저런자하니 한숨제워 흐노라

- 註 ① 時節(시절) : ‘정치 정세’를 비유한 말.  
② 저러하니 : 저렇게 어수선하니  
③ 人事(인사) : 사람들의 행동  
④ 아닐소나 : 아니할쏘나  
⑤ 이런자 저런자 하니 : 이렇고 저렇고 하니

현대어역 시절도 저 지경이 되어 가니, 사람의 일도 이 지경이로구나!

사람마다 모든 일이 이 지경이니, 어찌 모든 사람의 일이 저 지경이 아닐 수 있으리요?

이렇다 저렇다 시비들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숨을 참을 수가 없구나.

작품분석 이 시조는 당시의 어지러운 조정의 당파 싸움을 개탄하고 있는 노래다. 당파에 초연한 입장에서 있던 작자는 당시의 어지러운 정세(政勢)를 ‘시절’이란 말로 나타낸 후, 그로 인한 사회의 윤리, 도덕의 문란을 인사(人事)란 말로 묘사하고 있다.

102. 江湖(강호)에 期約(기약)을 두고 十年(십년)을 奔走(분주)하니

그 모른 白鷗(백구)는 더디온다 하건마는  
聖恩(성은)이 至重(지중)하시니 갓고 가려 흐노라

- 註 ① 江湖(강호) : 강과 호수. 자연. 관직을 떠나 은거하거나 시인, 묵객이 파문혀 사는 시골을 일러 江湖(강호)라고 한다.  
② 期約(기약)을 두고 : 약속을 하여두고 (돌아올 것을)  
③ 그 모른 白鷗(백구)는 : 그것을 모르는 백구는  
④ 聖恩(성은)이 至重(지중)하시니 : 왕의 은혜가 두터우시니

현대어역 강호에서 살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십 년 동안을 분주하게(바쁘게) 살아 왔노라.

그것을 모르는 백구(갈매기)는 더디온다고 재촉하건만

임금께서 베푸신 은혜가 막중하시니 갓고 가려 한다.

103. 鐵嶺(철령) 노픈 峰(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孤臣冤淚(고신원루)를 비사마 찍여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엇드리

- 註 ① 鐵嶺(철령) : 강원도 회양(淮陽)에서 함경도 안변(安邊)으로 넘어가는 재.  
② 孤臣冤淚(고신원루) : 임금의 사랑을 잃은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여기서 ‘孤臣(고신)’은 작자 자신을 뜻함.  
③ 비사마 : 비를 만들어  
④ 찍여다가 : 띄워다가  
⑤ 九重深處(구중심처) : 임금이 계신 대궐. 대궐의 담과 문이 9중(九重)으로 되어 있

는데서 연유한 말.

⑥ 엇드리 : 어찌하겠는가

**현대어역** 철령 높은 봉우리를 단숨에 넘지 못하고, 겨우 쉬었다가 넘는 저 구름아!

임금의 충애를 잃고 귀양길에 오르는 외로운 신하의 서러움이 맺힌 눈물을 비  
대신으로 띄워 가지고 가서,

임금이 계신 깊은 대궐 안에 뿌리는 것이 어찌하겠는가?

**작품분석** 이 시조는 작자가 광해군 5년에 일어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가 삭탈관직(削奪官職)되어, 북청으로 유배될 적에 철령을 넘으면서 지은 것으로, 후 일 이 시조의 내용을 듣고 광해군조차도 눈물을 흘렸다 한다.

月 沙 (월 사)

李廷龜 字聖徵 號月沙 宣廟朝登第 典文衡 (이정구 자성징 호월사 선묘조등제 전문형)

官至右相 諡文忠 以戊戌奏文名聞天下 (관지우상 시문충 이무수주문명문친하)

이정구(李廷龜 ; 1564~1635) : 자(字)는 성징(聖徵), 호(號)는 월사(月沙). 선조 28년에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인조 때에는 우의정, 좌의정에 이름. 한학사대가(漢學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저서에 「서연강의(書筵講義)」, 「대학강화(大學講話)」와 시문집(詩文集)이 있다.

104. **님을 미들것가 못 미들슨 넘어시라**

미더온 時節(시절)도 못 미들줄 아라스라

밧기야 어려와마는 아니 밧고 어이리

- 註 ① 미들것가 : 믿을 것인가  
 ② 못 미들슨 : 못 믿을 것은  
 ③ 아라스라 : 알았도다  
 ④ 어려와마는 : 어렵건마는  
 ⑤ 어이리 : 어찌하겠는가

**현대어역** 입을 믿을 것인가? 아마도 믿지 못할 것은 임이로다.

믿어온 그 시절도 믿을 바가 못 되는 줄로 알았도다.

밧기야 어려웠지만 입을 믿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작품분석** 이 시조는 신(信)과 불신(不信)의 상호 반복으로써, 믿을 수 없는 임이기는 하지만 자기로서는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柳 自 新 (유 자 신)

宣廟時人 官至判尹 (선묘시인 관지판윤)

希奮之父 (희분지부)

유자신(柳自新 ; 1533~1612) : 광해군(光海君)의 장인으로 태릉참봉(泰陵參奉)을 거쳐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지냈음.

105. **秋山(추산)이 夕陽(석양)을 띄고 江心(강심)에 잠겼는디**

一竿竹(일간죽) 두러메고 小艇(소정)에 안자시니

天公(천공)이 閑暇(한가)이 너져 들을조차 보내도다

- 註 ① 秋山(추산) :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산  
 ② 江心(강심) : 강 속  
 ③ 잠겼는디 : 잠겨있는데

- ④ 一竿竹(일간죽) : ‘하나의 대막대’란 뜻으로 ‘낙시대’를 일컬음.
- ⑤ 小艇(소정) : 조그마한 배
- ⑥ 天公(천공) : 하느님. 조물주
- ⑦ 들을조차 : 달마저도. 달까지

**현대어역**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산이 저녁놀을 띠고 강물에 잠겨 있는데,  
낙시대를 둘러메고 가서 작은 배 위에 (낙시줄을 드리우고) 앉아 있노라니,  
하늘이 한가로이 여겨서 달까지 보내주는구나.

**작품분석** 강심에 잠긴 가을산의 저녁경치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작은 배위에 낙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는 멋 또한 비길 데 없다. 게다가 동녘하늘에 달까지 등실 솟으니 그 기분 비길 데 없다. 가히 한폭의 그림이다. 천공이 너무 한가롭다고 여겨 달까지 보내주어 벗삼게 했다는 표현은 더욱 멋이 있다.

南 怡 (남 이)

世祖時人 官至兵判 (세조시인 관지병판)

남이(南怡 ;1441~1468) : 태종의 외손자. 17세에 무과(戊科)에 급제하여 세조 때에 장군으로 총애를 받고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일등공신이 되었으며 건주위를 토벌, 27세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됨. 예종 즉위년에 대궐 안에서 야직(夜職) 중 혜성이 떨어지자 묵은 것이 가고 새 것이 온다고 말한 것이 유자광(柳子光)에 의해 역모(逆謨)로 몰려 28세 때 처형당함.

**호기가 (豪氣歌)** ※ 호기 : 씩씩하고 장한 기상, 호걸스럽고 장한 의기

106. 長劔(장검)을 싸혀들고 白頭山(백두산)에 올라보니

大明天地(대명천지)에 腥塵(성진)이 좁겨세라  
언제나 南北風塵(남북풍진)을 헤쳐볼고 흐노라

註 ① 싸혀 : 빼어

② 大明天地(대명천지) : 환하게 밝은 세상.

③ 腥塵(성진) : 전진(戰塵), 곧 싸움으로 인한 먼지

④ 좁겨세라 : 잠겼구나.

⑤ 南北風塵(남북풍진) : 남만(南蠻)과 북적(北狄)이 일으키는 병란(兵亂), 곧 전쟁

**현대어역** 긴 칼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 보니

밝고 맑은 천지에 전쟁 기운이 덮여 있구나.

언제나 남북에서 자주 일어나는 싸움을 평정하여 세상일을 바로잡을까.

**작품분석** 젊은 장군으로서의 호기와 큰 포부가 잘 나타나 있는 시조다. 세조 13년(1467)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건주위를 정벌한 후 돌아올 때 지은 것이라 한다.

※ 같은 호기(豪氣)를 노래하며 그의 생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한시(漢詩)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白頭山石磨刀盡 백두산석마도진 (백두산의 돌은 칼가는 데에 다 닳아버렸고)

豆滿江水飲馬無 두만강수음마무 (두만강의 물은 말이 마셔 말라버렸구나)

男兒二十未平國 남아이십미평국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後世誰稱大丈夫 후세수칭대장부 (후세에 어느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

白 湖 (백 호)

林梯 字子順 號白湖 宣廟朝登第 官止禮 (임제 자자순 호백호 선묘조등제)

官止禮曹正郎 (관지예조정랑)

임제(林梯 ; 1549~1587) : 자(字)는 자순(子順), 호(號)는 백호(白湖). 선조 때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이르렀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명산(名山)에 노닐기를 좋아한 풍류 남아였음. 한문소설로 「화사(花史)」와 「수성지(愁城誌)」가 전함.

107. 靑草(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紅顏(홍안)을 어디두고 白骨(백골)만 무쳤는이

薑(잔)자바 勸(권)하리 업스니 그를 슬허하노라

註 ① 골 : 골짜기 ※ ‘靑草(청초) 우거진 골’이란 ‘무덤’을 가리킴.

② 자는다 : 자느냐. ‘~는다, 는다’는 고어에서는 의문형 어미

③ 누엇는다 : 누엇느냐

④ 紅顏(홍안) : 젊고 아름다운 얼굴

⑤ 무쳤는이 : 묻혔느냐. ‘~는이’는 의문중지형

⑥ 勸(권)하리 : 권할 사람

⑦ 슬허 : 슬퍼

현대어역 푸른 풀만 우거진 무덤에서 (그대는)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그 곱고 아름답던 얼굴은 어디두고 백골만 여기에 묻혀 있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찾아왔건만) 잔을 잡아 술 한 잔 권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작품분석 이 시조는 작자가 평안도사(平安都事)로 부임하는 길에 평소 교분이 있던 황진이(黃眞伊)의 무덤을 찾아 읊은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 일이 양반의 체통을 떨어뜨렸다고 논란이 되어 임제(林梯)는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그런 것에 개의됨이 없이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명산을 찾아 즐기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함.

玄洲 (현 주)

趙纘韓 字善述 號玄洲 宣廟朝登第 官至承 (조찬한 자선술 호현주 선묘조등제)

官至承旨 有文才 (관지승지 유문재)

조찬한(趙纘韓 ; 1572~1631) : 자(字)는 선술(善述), 호(號)는 현주(玄洲). 선조 39년에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예조참의(禮曹參議), 동부승지(同副承旨), 상주목사(尙州牧使)등을 역임하고, 인조반정 뒤는 형조참의(刑曹參議), 선산부사(善山府使)등을 지냈다. 저서로 「현주집(玄洲集)」이 있다.

108. 貧賤(빈천)을 폴라하고 權門(권문)에 드러가니

침업슨 흥정을 누 몬져 하자하리

江山(강산)과 風月(풍월)을 달라하니 그는 그리 못하리

註 ① 폴냐하고 : 팔려 하여

② 權門(권문) : 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집안

③ 침업슨 : 치름 없는

④ 흥정 : 물건을 사고 파는 일

⑤ 江山(강산)과 風月(풍월) : 아름다운 자연

현대어역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일이 지긋지긋하여, 그것을 팔고자 권세 있는 집을 찾아갔더니,

대가(對價)가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겠다고 하리요!

강산과 풍월을 달라고 하니 그것만은 절대로 안될 노릇이로다!

**작품분석** 비록 가난하지만 강산과 풍월을 벗하여 사는 풍요한 마음, 이것은 어떤 권세나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자연에 귀의하여 사는 즐거움을 풍자적(諷刺的)으로 나타낸 시조다.

109. 天地(천지) 몇 번째며 英雄(영웅)은 누고누고

萬古興亡(만고흥망)이 수후 줌에 꿈이여늘

어디서 망녕옛 거슨 노지 말라 흐느니

註 ① 누고누고 : 누구누구인가

② 萬古興亡(만고흥망) : 오랜 세월을 두고 흥하고 망한 일.

③ 수후 : 수유의 오철. 잠깐

④ 망녕옛 : 망령(妄靈)한

**현대어역** 천지가 바뀐 것은 몇 번째며,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은 그 누구누구이던가?

오랜 세월을 두고 흥하고 망하고 한 일이 잠깐 동안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늘,

어디서 망령스런 것이 놀지 말라고 하느냐.

**작품분석** 작자는 인간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한 바탕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달관하여 세속을 초월하고자 염원하고 있다. 자연귀의(自然歸依), 무욕(無慾)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안주지(安住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조의 기둥이다.

鶴谷 (학곡)

洪瑞鳳 字輝世 號鶴谷 宣廟朝登第 選湖堂 (홍서봉 자휘세 호학곡 선묘조등제 선호당)

參重試 典文衡 官至領相 益城府 院君 (참중시 전문형 관지영상 익성부원군)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 자(字)는 휘세(輝世), 호(號)는 학곡(鶴谷). 선조 27년에 문과에 급제, 대북과의 전횡을 탄핵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인조 19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이르름.

110. 離別(이별) 흐든 날에 피눈물이 난지만지

鴨綠江(압록강) 느린 물이 푸른 빛치 전혀 업너

비우회 허여 센 沙工(사공)이 처음 보좌 흐드라

註 ① 난지만지 : 난중만동

② 비우회 : 배 위에

③ 허여 센 : 하양계 센. 백발(白髮)이 된

**현대어역**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떠나던 날(하도 어수선하여) 피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지만,

압록강 위에 흘러내리는 물도 푸른빛이란 전혀 없고 온통 피빛이로구나!

배 위에 백발이 된 사공이 그런 슬픈 일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

**작품분석** 이 시조는 병자호란을 겪은 뒤 소현세자, 봉림대군 등이 불모로 심양(瀋陽)으로 잡혀가는 처지에서 그 슬픈 민족적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李 舜 臣 (이 순 신)

宣廟朝武科 官至統制使 諡忠武 有智略壬辰 (선묘조무과 관지통제사 시충무 유지략임진)

?全羅右水使 作龜紅破倭賊

(?전라우수사 작구홍파왜적)

이순신(李舜臣 ; 1545~1598) : 자(字)는 여해(汝諧). 선조 9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뒤 함경도의 동구비보권관(董仇非堡權管)을 시작으로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를 거쳐 47세에 좌의정 유성룡의 추천으로 저라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큰공을 세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되었으나 원군의 모함으로 하옥되었다가 다시 풀려나 노량(露梁)싸움에서 적병의 유탄에 전사함. 사후 영의정에 추증됨. 시호는 충무(忠武).

**한산도가(閑山島歌)**

**111. 閑山(한산)섬 둘 벌근 방의 戍樓(수루)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피 츄고 기픈 시름 흐는 적의

어디서 一聲胡茄(일성호가)는 늙의 애를 굿느니

註 ① 閑山(한산)섬 : 거제군(巨濟郡)에 딸려 있는 작은 섬.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섬

② 戍樓(수루) : 수자리 터에 세운 적을 감시하는 망루(望樓). ‘수자리’는 국경지대를 지키는 임무를 뜻함.

③ 녀피 : 옆에

④ 시름 : 근심

⑤ 一聲戶茄(일성호가) : 한가닥 오랑캐의 피리소리. 호가(戶茄)는 호인(胡人)들이 같이 으로 만들어 불던 것으로 그 소리가 매우 애처로웠다고 함.

⑥ 늙의 : 남의(他人). 여기서는 ‘작자 자신’을 뜻함.

⑦ 애 : 창자

⑧ 굿느니 : 끊느냐

**현대어역** 한산섬의 달 밝은 밤에 수자리터 망루에 외로이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는 호가(한가닥의 피리소리)는 이렇듯 애처로이 나의 쓰라린 창자를 모두 끊어 놓으려 하느냐.

**작품분석** 이 작품은 임진왜란의 진중작(陳中作)으로 선조 28년에 지은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어휘가 있다면 ‘혼자’라는 낱말과 ‘기픈 시름’ 그리고 종장에 나오는 ‘일성호가는 늙의 애를 굿느니’라는 대목이다. 비록 달이 밝고 바다는 고요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간직한 고요함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닥의 구슬픈 피리소리에 애를 태우는 인간미와 그 여유, 그것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지장(智將)이 아니고서는 지닐 수 없는 경지일 것이다.

**呼兒曲四調竝詩 (호아곡사조병시)**

※호아곡사조(呼兒曲四調) : 이 시조는 모두 작자가 벼슬에서 파직되어 자연에 묻혀 살 때의 한가로운 심정을 노래 한 것으로, 초장의 첫구가 모두 아이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호아사조(呼兒四調)” 또는 호아곡(呼兒曲)이라고 불린다. 초야에 묻힌 은사의 생활은 나물캐기(採薇), 낚시질(釣水), 농사일(耕田), 술마시기(飲酒)로 요약되는 바, 이 시조에도 그것이 차례대로 읊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은(聖恩)임을 감축하고 그러한 태평시대에 사는 즐거움을 구가하고 있다.

龍湖 (용 호)

趙存性 字守初 號龍湖 宣廟朝登第 (조존성 자수초 호용호 선묘조등제)

官至知敦寧 諡昭敏 (관지지돈녕 시소민)

조존성(趙存性 ; 1553~1627) : 자(字)는 수초(守初), 호(號)는 용호(龍湖). 선조 23년에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서인(西人)의 탄핵으로 파면되었다. 광해군 5년에 생모추존(生母追尊)을 반대하다가 파직 당했으며,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형조(刑曹)와 호조(戶曹)의 참관을 지냄. 75세 때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호조판서로서 세자(世子)를 따라 전주(全州)에 갔다 돌아와서 병사하였다.

112. 아히야 구럭망태 어두 西山(서산)에 날늦거다

밤 지낸 고사리 흐마 아니 늘그리야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朝夕(조석) 어이 지내리

右西山探薇 (우서산채미)

呼兒先問有無筐 回首西山晚日長 (호아선문유무광 회수서산만일장)

怕夜來薇蕨老只 只綠朝夕不盈腸 (파야래미췌노지 지녹조석불영장)

註 ① 구럭망태 : 구럭과 망태. 새끼로 엮어 만들어 물건을 넣어 메고 다니게 된 것.

② 어두 : 거두거라. ‘거두’의 ㄱ탈락형.

③ 늦거다 : 늦겠다

④ 흐마 : 벌써

⑤ 푸새 : 풋나물

⑥ 朝夕(조석) : 아침, 저녁의 끼니

현대어역 아이야, 구럭과 망태를 거두어라. 서산에 해가 늦었구나.

밤을 지낸 고사리는 벌써 늙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 풋나물이 아니면 무엇으로 끼니를 잇겠느냐?

작품분석 서산채미(西山探薇)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조로, 산에서 고사리를 캐며 사는 물욕 없는 은사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113. 아히야 되롱 샷갓 출화 東澗(동간)에 비 지거다

기나긴 낙대에 미늘 업슨 낚시 낚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흥) 제워 흐노라

右東澗觀魚 (우동간관어)

呼兒將出綠簑衣 東澗春霏洒石磯 (호아장출녹사의 동간춘비세석기)

籊籊竹竿魚自在 爲他溪老已忘機 (적적죽간어자재 위타계노이망기)

註 ① 되롱 : 도롱의 옛말. 띠 따위로 엮어 어깨에 걸쳐 두르는 우비의 하나.

② 샷갓 : 대오리나 갈대로 엮은 갓

③ 출화 : 차려라의 옛말

④ 東澗(동간) : 동쪽 산골짜기. 동쪽 시내

⑤ 비 지거다 : 비가 스쳐갔다. 비가 지나갔다. 비가 그쳤다는 옛말

⑥ 낙대 : 낚싯대의 옛말

⑦ 미늘 업슨 낚시 : 바늘 없는 낚시의 옛말. 또는 끝은 낚시.

현대어역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산골짜기에서 오던 비가 스쳐 갔다.(지나갔다)

기나긴 낚싯대에 바늘이 없는 낚시(또는 끈은 낚시)를 매었으니  
저 고기들은 놀라지 말아라. 다만 나는 흥에 겨워서 빈 낚시를 드리운 것뿐이  
니라.

**작품분석** 동간조어(東澗釣魚)라는 제목의 시조로 물고기를 낚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고  
기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즐기는 한가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114. 아히야 粥早飯(죽조반) 다오 南畝(남무)에 일 만해라

서투른 싸부를 늘 마조자 부려뇨

두어라 聖世躬畊(성세궁경)도 亦君恩(역군은)이시니라

右南畝躬畊 (우남무궁경)

呼兒曉起促盤滄 南畝春深事已殷 (호아효기촉반창 남무춘심사기은)

欲把犁鋤誰與耦 聖時農圃亦君恩 (욕파이서수여우 성시농포역군은)

註 ① 粥早飯(죽조반) : 아침에 밥으로 먹는 죽

② 南畝(남무) : 남쪽 양지바른 밭

③ 서투른 싸부를 : 서툴게 하는 쟁기질의 옛말

④ 늘 마조자 부려뇨 : 누구와 같이한단 말이나?

※옛날 쟁기질은 한 사람은 쟁기(따비)를 잡고 또 한 사람은 소 대신 사람이 끌었  
다. 따라서 쟁기질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맞상대를 누구와 할 것  
인가의 뜻이다.

⑤ 聖世躬畊(성세궁경) : 어진 임금의 다스리는 세상에 논 갈고 밭 갈며 농사짓는 일  
이란 뜻

**현대어역** 아이야, 죽조반을 다오 남쪽 밭에 할 일이 많다.

서투른 솜씨로 따비(쟁기)를 누구와 맞잡고 갈 것인가?

두어라, 태평한 시대에 몸소 밭갈고 살아감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작품분석** 남무궁경(南畝躬畊)이라는 제목의 시조로 벼슬에 물러나 서툰 농사일하는 심경  
을 읊은 것으로 태평성대 속에 살 수 있는 임금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

115. 아히야 쇼 며저 내여 北郭(북곽) 새술 먹자

大醉(대취)흔 얼글을 들빛체 시러오니

어즈버 羲皇上人(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와다

右北郭醉歸 (우북곽취기)

呼兒騎犢過前川 北郭新醪正似泉 (호아기독과전천 북곽신료정사천)

大醉浪吟牛背月 愜然身在伏羲天 (대취랑음우배월 황연신재복희천)

註 ① 北郭(북곽) : 북쪽의 성터. 북쪽 마을↔南畝(남무)

② 새술 먹자 : 새술 먹자. 새로 거른 술

③ 들빛체 시러오니 : 달빛에 실려 오니. 달빛을 받으며 소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오니

④ 羲皇上人(희황상인) : 희황시대의 태평 세월에 살던 백성. 중국 상고시대의 伏羲皇  
帝(복희황제)를 말함. 희황(羲皇)은 중국신화시대의 제왕으로  
백성들에게 고기잡이와 사냥, 목축을 가르쳐 먹을 것을 마련  
하게 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고 함.

⑤ 보와다 : 보도다

**현대어역** 아이야, 소에게 여물을 먹여 내어 오너라. 북쪽 마을에 가서 새로 빚은 술을 마시련다.

잔뜩 취해 달빛을 소의 등에 실어 돌아오니

아아, 중국상대의 태평하고 행복한 백성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작품분석** 북곽취귀(北郭醉歸)라는 제목의 시로 태평성대에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술을 마시며 즐기는 농촌의 정경을 느낄 수 있다.